

대한민국은 엄혹했던 군부독재 정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회,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 역사적 분기점의 순간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해 온 시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시국선언문'이라는 텍스트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불과 8년 전 탄핵을 겪었던 시민들은 오늘 다시 한번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혼란의 시간 속에 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에서 우리가 체득했던 역사의 교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선명함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4년, 다시 한번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며,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시국선언문을 다시 소환하고자 합니다. (시대 정신)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파면을 넘어, 그 이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

From the days of the harsh military dictatorship to the pres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overcome numerous social and political crises, laying the foundation for democracy. At each historical turning point, some citizens have resisted unjust power, and their voices have been captured in the text "Statement Declaration." However, citizens who experienced impeachment just eight years ago face confusion again, repeating the same historical patterns. The lessons we learned from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and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in 1987 may be losing their clarity of what we fought for over time. As we move through a period of upheaval in 2024, we recall the Declaration of Current Affairs, which captures citizens' voices at significant inflection point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 "Spirit of the Times" project goes beyond merely opposing a specific regime; it seeks to depict the form of democracy that citizens must actively pursue moving forward. 📖

프로젝트 기획, 진행, 그래픽 디자인 일상의실천

시국선언문 아카이브 정리

참여 작가

봉성창, 전다현
 강인구, 강혜린, 권민호, 권준호, 김경선, 김경철, 김어진, 김영나, 김영철, 김은지, 김의래, 김재영, 김태룡, 노도균, 로호타입, 리프트오프, 모임 별, 문장현, 민구홍 매뉴팩처링, 민동인, 박금준, 박민지, 박세희, 박유선, 박지은, 박채희, 석창희, 선데이, 스튜디오 혁, 스팍스에디션, 시멘트, 신명섭, 신지웅, 심우진, 안마노, 안병학, 안지호, 양나원, 양현호, 오미유, 용세라, 유환준, 윤충근, 윤현학, 이도의, 이용제, 이철민, 이푸로니, 인더그래픽스, 임민재, 임자필드, 장기성, 전채리, 정재완, 정호숙, 조아영, 진달래&박우혁, 채병록, 채수진, 최경주, 최고야, 크리스로, 프론트도어, 함지은, 허민재, 황현범
 김진솔
 디렉터: 권준호, 김경철
 디자인: 김경철
 개발: 양나원, 신지웅
 AG 타이포그래피연구소, SAA, 두성종이, 리얼레이션 스페이스, 새로움아이, 안그라픽스, 퍼스트경일, 에르코라이팅코리아, 펠스닉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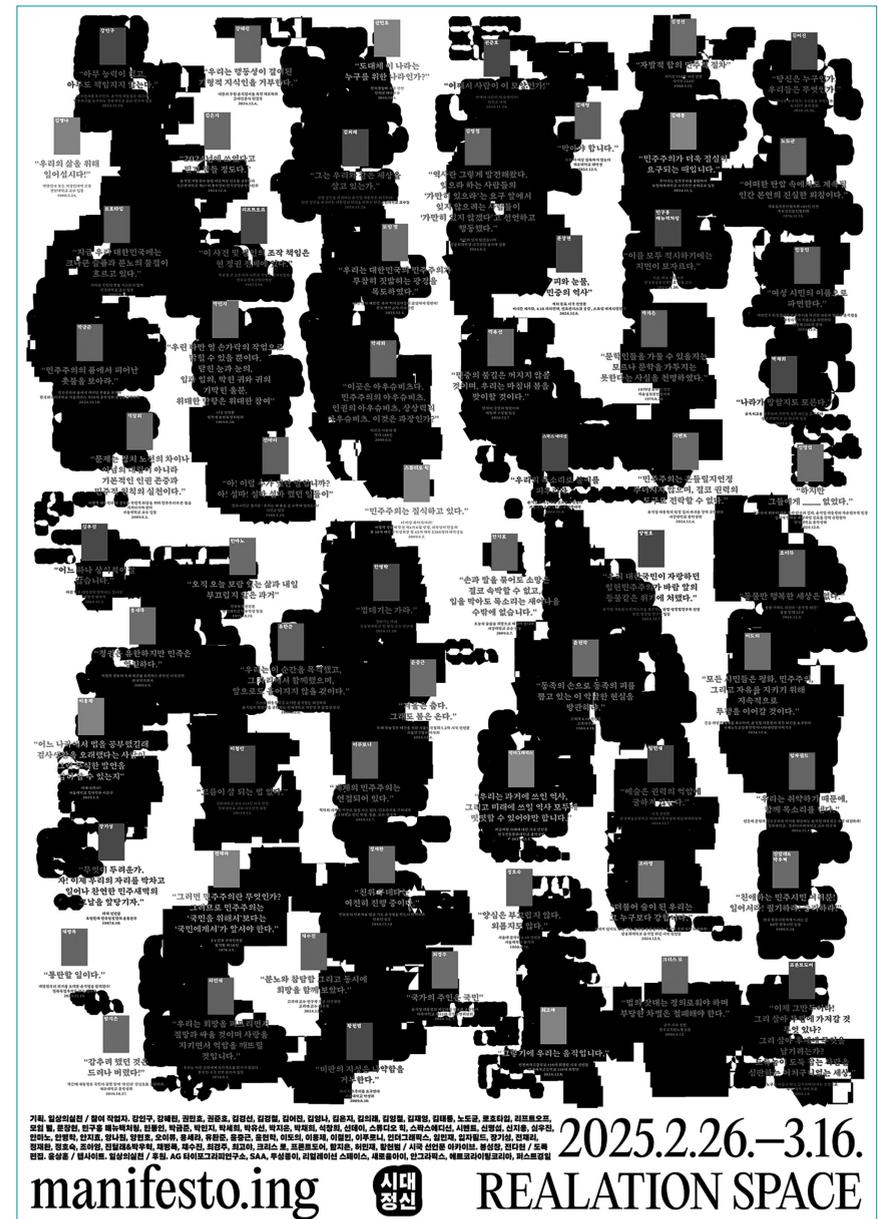
pp.260-28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한국디자인시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주목할 작업들 Works that Work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역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60261



날: 2025년 2월 26일 - 3월 16일
 때: 11am-6pm
 곳: Reation Space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6 1층

manifesto.ing **시대정신** REALATION SPACE 2025.2.26.-3.16.

ZEITGEIST 시대정신 時代精神

더불어 모든 시민
강합니다 그리고 자
지속적으

2024년 12월

사건이 벌어

시민들의 힘 언제나 그랬
우리나라 민 모아 하나의
일이다. 대한대처하고 있
되어 항거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수 이 사회가 가
힘을 모으고 2년 전, 도시
그것이 수백 재료는 랜드
선언문을 골 시민들의 마
나이, 계층, 담아내야 하
우리의 모습 그때 미쳐 채
된 우리 모두 기호로 만들
길목을 밝혀 표현들은 자
춧불, 우리의
이런 마음들
민주주의, 자

우리는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이 작업의 제목으로 활용한 문장은 1960년 4월 2일 발행된
『고대신문』 235호 1면에 기재된 사설의 일부이자 4·19
혁명의 계기가 된 고려대학교 4·18 의거 선언문의 일부다.
되풀이되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행동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거부한다.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264265

안병학
코르푸스

이도의
브랜드

이도의는 브랜드(예
예술디자인대학에
라인플러스에서 디
디렉터로서 다수의
그를 브랜드를 설
황금 씨앗), 『가난
디자인 어워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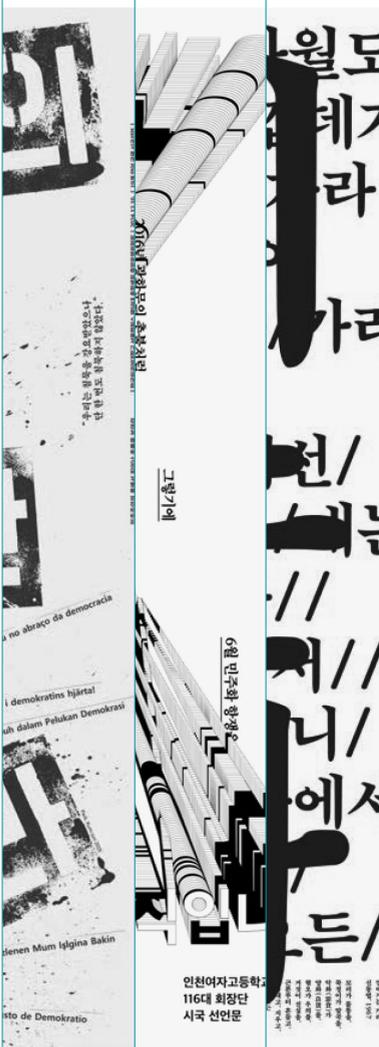
조아영
primavera78@na
애니메이션과 회화
(1회 공공디자인
코르푸스(Corpu

강혜린
모빌스그룹
haelyyy@gmail.com
@__9ang

디자이너 노동자, 모빌스그룹(Mobills Group)에서 브랜드 디자이너, 무비랜드에서 도안가로 일한
시각을 전반을 경계 없이 다루고자 한다.



행동성이 결여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윤석열 씨를 죽자 고대신문사 편집국 2024. 12. 4.



인천자고등학
116대 회장단
시국 선언문
2024. 12. 10.
2024. 12. 11. 20.

아! 이럴 오직 오늘그러면 민
아! 설마내일 부끄민주주의
‘국민에게
계엄의 부조반세기 전 정
담아냈다. 지닌 울림이
말입니까?” 환경 속에 있1976년 함석
와서는 경이 그 문장에 놓였으며, 오늘
경외심으로 많은 오늘을 느낀다. 대한
나와야 한다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란
행사하는 계
민주주의는
담기 위해 민
초성, 중성, 국
‘나’의 바탕 위
‘민주주의’라
참여 위에 민
‘민’의 초성 ‘
담아 과거와
쓰인 “그러면
이들에게 던

안마노	전채리
안그래픽스	씨에프씨
안마노는 홍익대	아이덴티티 디자인
양재민, 윤희대	이미지 사이의 간
선데이	〈스위스 벨트포매
양재민, 윤희대	디자인(APD) 등에
선데이(Sunday)	디자인을 가르쳤고
중이며, 무엇보다	이르고 있다.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될
인간 본연의 진실한 외침이다.

붕괴되었다, 그래서 근간이 드러났다. 붕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단하다. 붕괴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녹아 근간을
이를 준비를 한다. 그렇게 또다시 높이 쌓아 올려질 것이다.
마치 무너진 폐허 속 철근들처럼.

노도균			
매미	nodogyun8@gmail.com	maemi-office.com	@dono_worl
서울에서 활동 중인 그래픽디자이너로 '담백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시각언어를 탐구 중 대학교 2학년 시절 작업물을 본 교수님의 순수한 질문인지 아니면 화를 억누르기 위한 최후의 소 모를 '공대생 혹은 행정학과 학생'이라는 발언은 큰 충격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사활을 다하다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마나, 최재영 두 명의 디자이너와 같이 공명 현상을 모티브로 삼아 활동을 하는 '매미(MAEMI)'라는 이름의 스튜디오 또한 운영 중이다.			

266267



!압 속에서도 계속될 인간 본연의 진실한 외침이다.
!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명 1974. 11. 15.



다.
서가 앞서야 한다.
4. 6. 2.
50. 4. 18. 6. 3. 1.

어느 날 더불어 숲 우리는 이
 검사생 강합니다 그 자리에
 무식한 나 앞으로

2024년 12월
 사건이 벌어

서울대학교 시민들의 힘 대한민국의
 송곳처럼 우리나라 민 혼란 속에서
 이해할 수 (일이다. 대한나갔다. 과거
 행동이 나5되어 항거하 도구와 함께
 서울과 전 국민주의 수.

어리둥절히힘을 모으고 검은 배경 위
 서로의 궤복그것이 수백 운울감 있게
 윤석열(대 특선언문을 골 문화를 상징
 행동자는 9나이, 계층, 문장으로 현
 어디서 무9우리의 모습 표현했다.

이준구 교수된 우리 모두
 포스터에 각길목을 밝혀 시민들의 민
 뽑아서 강조 꺼지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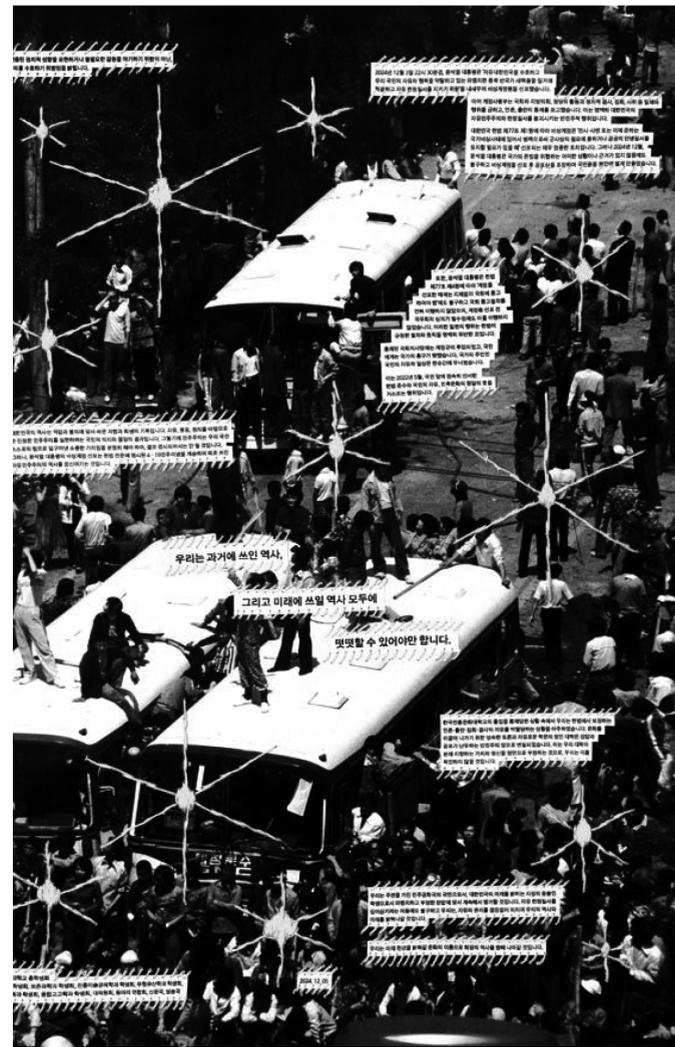
우리는 과거에 쓰인 역사, 그리고
 미래에 쓰일 역사 모두에 떳떳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희생으로 쓰인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시점에 대해
 쓰일 미래의 역사에 주목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일련의
 사건에 의해 새겨지는 기록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며,
 시간이라는 실을 통해 이어져 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사진과 2024년 12·3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바느질로 연결해 두 시대를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지면 곳곳을 빛내고 있는 요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현대 시민들의 시위 도구인
 촛불과 응원봉을 상징한다. 광주 시민들의 시위 현장 위에서
 빛나는 현재의 불빛은 민주주의를 지켜 낸, 지키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찬사이자 희망을 표현한다.

이정인, 차상우, 김정은

인더그래픽스 studio@inthe.graphics inthe.graphics @inthe.grapt
 인더그래픽스(IN THE GRAPHICS)는 이정인, 차상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이다. 시각물 속에 있는 요소와 형태들이 촘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 주
 이야기로 느껴지는 디자인 방식을 추구한다. 단일한 기법이나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
 념날 수 있는 디자인적 풀이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268269



과거에 쓰인 역사, 그리고 미래에 쓰일 역사 모두에 떳떳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4. 12. 5.
 총학생회



24. 12. 4. 24. 12. 9.

가진 사람이면 연금-
 돈 못할 텐데요. 아예 오
 나라의 법질서가 엉성하
 느니까 풀립니다. 대통령이
 어기는게 국민이 왜 지
 리 하겠습니까? 법원이
 할까요? 불법이라고 부
 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수의 근간을 뒤흔튼 민
 질 반행으로 인해 우리 사
 이에 무법천지의 시대
 어가려는 것 같네요. 우
 회는 지금 이 정도로 민
 심에서도 정상적 상태
 복되려면 엄청난 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이 분
 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
 을 한사로 끌어안고 있는
 법이라는 작태로 인해 리
 주 더욱 심하게 망가져 가
 합니다. 어미론도 망가져
 가 오날 다르고 내일 다르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바보
 가지 가고 있음을 느끼실
 필필만큼의 양심이라고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히 할 수 있는지
 25. 1. 5.

분노와 민주주의 동물만 함께 보, 피어난 꽃

분노로부터 “우리는 침묵사무실에 남
참담한 상황 우리는 불의 온 전화. 비스
내일을 위해 답한다.” 한 격정스러운
포스터 속 대한민국 민 소리라고 생
큰 실루엣들 광장의 에너지 들렸다. 하
자아낸다. 피어난 꽃 불 프로펠러를
만들어 내는 각인시키고 자주 만나던
19개 언어의 영문도 모르
별일 아닐 거
권력으로 동
충격적이었
자리를 내주
포스터를 디
생존권마저
모습을 표현
글 상자는 동
디자인했다.

	신소현
박금준	오이뮤
601비상	오이뮤(OIMU) 대
채수진	그래픽디자이너, 브랜디자, 디자인
워크스	올해의 에이전시 제안한다. 「색이를
워크스(WORKS)	국제 전시에 참여한 또한 성냥, 북, 향,
공부했다. 대상의	예술장식박물관, 디자인했다. 북촌

어느 하나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여러 시국 선언문을 살피며 가장 와닿는 문구는 “어느 하나 상식적이질 않습니다!”였다. 그들의 모욕감을 공감할 수 있었다. 명예는 소중한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군인에게 명예란 두려움에 맞서는 무기요, 시대정신이다. 잃는 순간 눈 뜬 송장이 되어 구천을 헤매기에 악착같이 버티며 저항하는 것이다. 작업을 해야 하는데 몸이 슬픔에 젖어 무거웠다. 그러다 추운 날 K-pop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시위하는 시민들을 봤다. 그들의 명예에는 어떤 흠집도 없었다. 그 뿐만 희망을 보고서야 몰입할 수 있었다. 탈춤을 추듯 해학과 풍자의 흐름을 탔다. 그렇게 회복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았다. 고맙고 신기했다.

270271

심우진			
물고기	simwujin@gmail.com	mulgogi.art	@simwujin
타이포그래피, 타이프디자이너, 작가. 글자를 관찰하고 만들고 써보고 이야기한다. 최근 저서로 「글자 삼번요추: 저온숙성 타이포그래피 에세이」가 있다. 물고기 대표,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2024-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해병대 예비역 444명 2024. 12. 3.



24. 12. 4. 것이다.
24. 12. 4. 24. 12. 4.

그렇기 민중의 불겨울은 출
우리는 미

작은 움직임은 언문은 북북이 사라지.
미치고 확실불길의 형상 사라지고 나
발현된 민주
메시지를 사
동적인 레어
움직임의 결
발자국은 단
저항의 의지
시각적으로
변화를 시키
변화가 일어
역사의 반복
사회에 미치
시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시 30분, 10과 11 사이를 가리키는 불안정한 시침. 42도로
길게 늘어진 글자는 마치 능력과 책임 부재의 시대가 드리운
그림자 같다. 이 작업은 이러한 시각적 장치를 통해 능력과
책임 부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시민들의
비관적인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이다.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272273

강인구			
키그타입	inguus.00@gmail.com	kigtype.com	@kigtype
키그타입(kigtype) 파운더리를 운영하는 타입 디자이너. 「아라리오」, 「청송」, 「빈틈」, 「조각도」, 「2」 등의 글꼴을 디자인했으며, 글자를 조형으로 활용한 그래픽을 다룬다. 현재 시립대학교 석사 과정 진학을 준비하며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활동과 글꼴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을 요구한다. 윤석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179명	2024. 11. 19.
해고다.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		



24. 12. 7.	24. 12. 7.	24. 12. 7.
------------	------------	------------

최고야	박유선
에프지더블유	플레인앤버티컬
시각디자인 분야 그래픽 디자이너, 여러 환경의 데이터 전공하고, 영국을 여러 환경의 데이터 과정에 있다. 다들 제안한다. 홍익대학에서 수상 공부했다. 디자인 디자인 스튜디오 '강의를 진행하고 홍익대학교에서 해체하고 탈학습	윤충근 충근 디자인 스튜디오 '해체하고 탈학습

여성 시이를 모두동물만 한 지면이도

성명문을 2024년 11월 사무실에 남
한편, 그리 시국 선언문 은 전화. 비
차분함과 모두 적시하 걱정스러운
시민의 이틀우리는 지면 소리라고 생
이름이 꿈꿨문제, 반복된서들렀다. 하
일이 각 단 필요한 웹사 프로펠러를
있을까? 그 새로운 국면 자주 만나던
수 있을까? 우리가 여전 영문도 모르
하나 아렌트 별일 아닐 거
세계를 부정 권력으로 동
새로운 질서 충격적이었
revolution er 자리를 내주
order, not ju 포스터를 디
create a new 생존권마저
모습을 표현
글 상자는 동
디자인했다.

신소현
민구홍 매뉴팩처링 오이뮤
support@mingul 오이뮤(OIMU) 대
민동인 브랜디자, 디자인
좀비출판 안그래픽스와 워드 제안한다. 『색이를
2018년경부터 한 미술 및 디자인계 또한 성남, 북, 향,
능란한 수행과 2025년 설립 10주 디자인했다. 북촌

문학인들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문학을 가두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분노하고 항의하며 절규한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자책에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의 무능과
나약을 질타하여 실천과 결단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 문학인들은 이 땅에 민족통일, 민주회복, 정의구현,
자유실천을 이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4월 ‘구속 문인들을 위한 문학의 밤’에서 비록 당국이
문학인들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문학을 가두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 1979년 문화인 선언 중, 200자 원고지 15매 중 12매째

274275

박지은
페이지넘버 page.no.official@gmail.com studiopagenumber.com @page.no.of
동아시아를 둘러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사,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연구와 작업을
한다. 홍익대학교에서 '한글 가로짜기 전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박사 연구를 진행했으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프로젝트,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목록 기초 조사 연구, 국립한글
전시 (한글실험프로젝트: 근대 한글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 리서치,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스튜디오 페이지넘버(Page Number)를 운영하며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타이포그래피와 커뮤니
디자인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1979년 문화인 선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979. 8. 20.
문학인 선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979. 8. 20.



24. 12. 5. 24. 12. 5. 24. 11. 28.

문제는 법의 잣대이제 그만
 이념의 부당한 처그리 살이
 민주적 이 문구를 선도독놈이
 발생할 수 있어처구나
 2009년은 빈감하고 잘
 기억이 흐려분류되어 살
 활용했다. 설명하기 어
 색이 바랜 역이민자로
 그때의 기억일부가 되었
 보호한다는
 하지만 그것
 이는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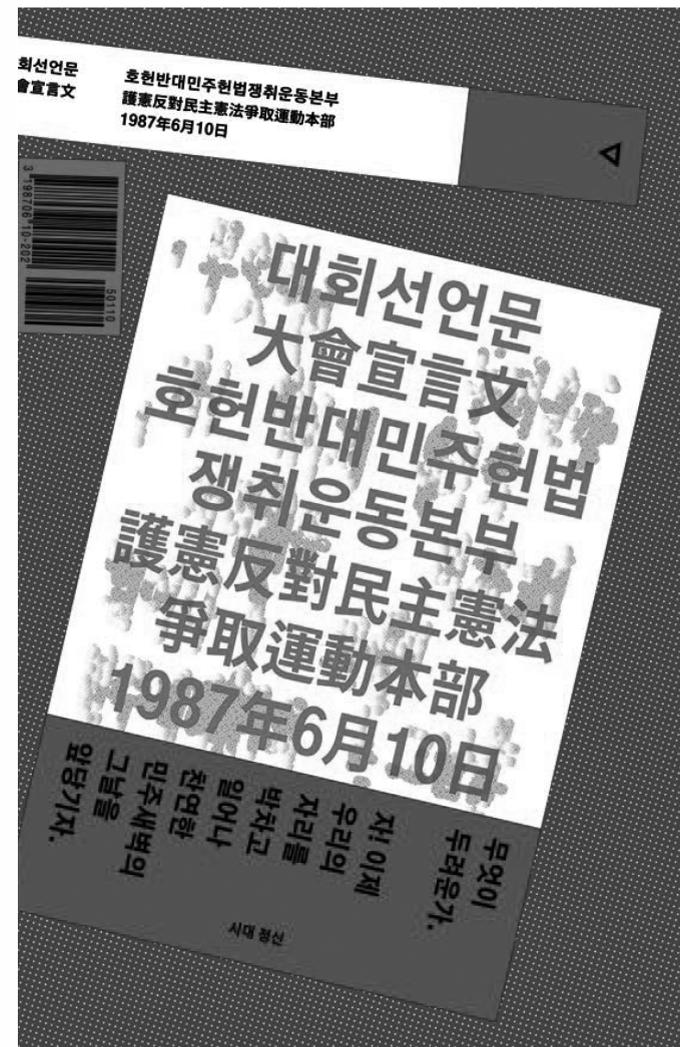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기록이 기록되길. 생각에서 목소리로. 목소리에서 행동으로.
 책에서 포스터로. 포스터에서 전지로.
 표1(앞표지), 책등, 띠지, 바코드. 가장 전통적인 매체인 책의
 구성을 빌렸다.

276277

크리스로	
chris.ro.office@g	
1976년생. 비시각 것보다 감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등장한 인쇄, 설치, 애니메 버클리에서 건축을	강민정, 민경문 프론트도어
1993년 경주에서 현재 홍익대학교 디자인 스튜디오 엘버트(V&A) 박물 관심을 가지고 있	강민정과 민경문은 프론트도어는 글자 다양한 기업의 프

장기성	
트라이앵글-스튜디오 info@triangle-studio.co.kr triangle-studio.co.kr @triangle_st	
그래픽디자이너.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트라이앵글-스튜디오(TRIANGLE-STUDIO)를 운영한다.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타이포그래피와 컬러, 조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인쇄 기반의 그래픽, 편집,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간헐적인 전시, 강연, 저술 활동을 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1문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1987. 6. 10.	
국민운동본부	



다! ES!	
10. 5. 24.	24. 12. 4.
10. 5. 24.	10. 5. 24.



한국디자인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주목할 작업들 Works that Work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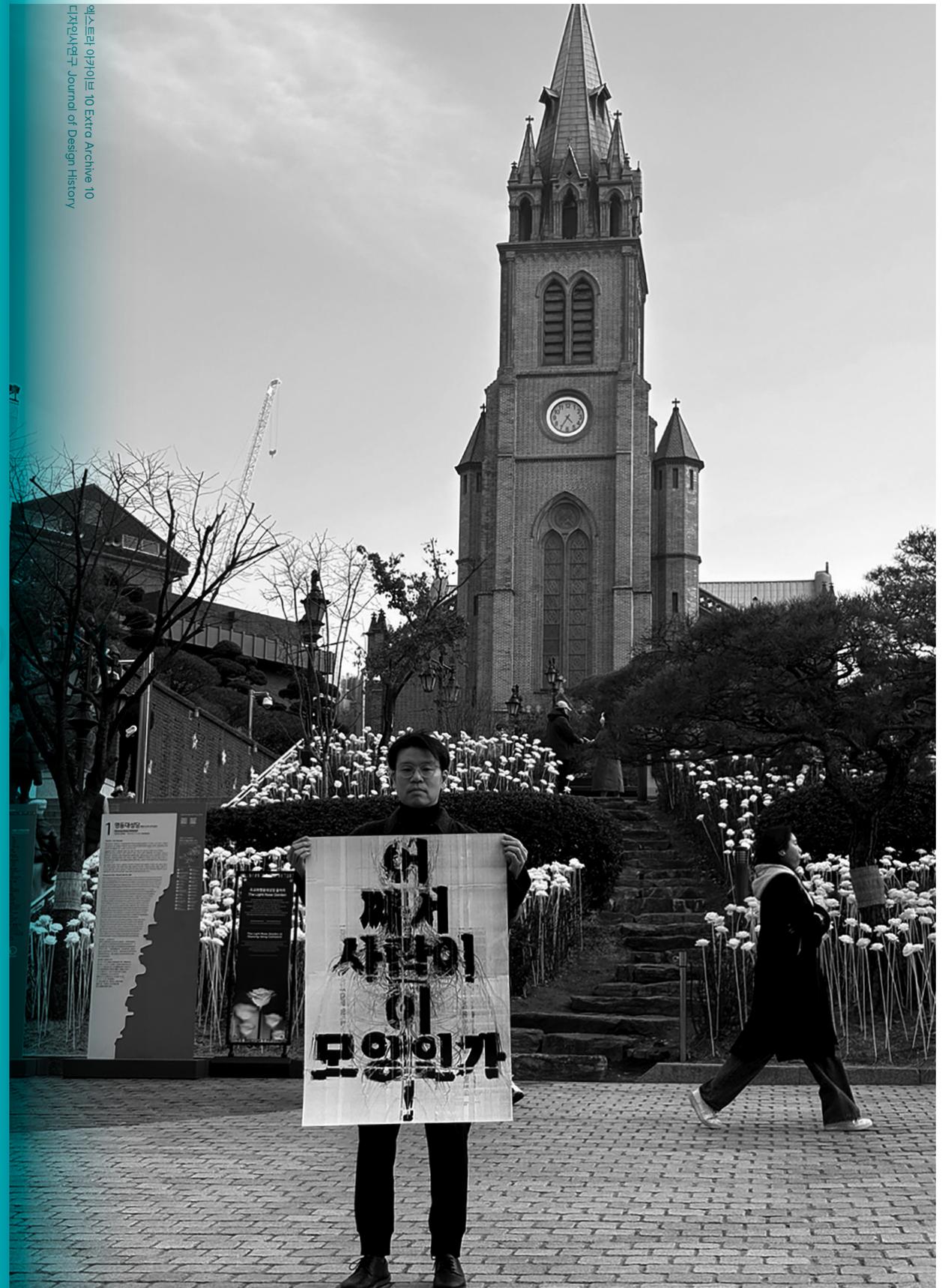
279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주목할 작업들 Works that Work

280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주목할 만한 작품 Works that Work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82 283



《시대 정신》 디지털 아카이브
이 공간은 《시대 정신》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작된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트랙패드를 이용해 화면의 커서를 이동하면,
각 포스터에 담긴 정보와
시각 선언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주목할 작업들 Works that Work

284 35

